

'97 Asia Polymer Symposium을 마치고

아시아 고분자 심포지움은 1980년부터 매 2년마다 개최되는 일본-중국 2개국간의 국제세미나 이었다. 그 후 Asia Polymer Symposium으로 확대 개편되어 제1회 심포지움이 1993년 일본 미에대학에서 개최되었을 때 경북대 김우식 교수가 초청되어 참석하였고, 제2회 심포지움이 1995년 5월 중국 개봉의 하남대학에서 개최되었을 때부터 한국이 정식 회원국이 되었고 한국 과학자 11명이 참가하였다. 그 당시 조직위원회는 제3회 심포지움을 1997년 5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한국측 참가자들간의 의논 끝에 김우식 교수가 '97 아시아 고분자 심포지움의 조직위원장을 맡기로 하였다. 심포지움 준비를 위해 일해야 할 입장에 있었던 본인으로써 그 당시로는 2년 후의 행사이었으므로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였었다. 10개월이 지난 뒤 96년 2월에 준비에 착수하였고 12월경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였다. 발표분야, 발표자 및 초청연사 선정, 협찬회사 접촉 등 준비에 필요한 사항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다행히 여러 기업에서 협찬하여 주었고 한국과학재단에서도 지원해주어 재정적으로는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었다. 지면을 통해 협찬해주신 (주)코요롱, (주)제일합섬, (주)제일모직 등의 임직원과 KOSEF에게도 감사드린다.

이번 아시아 고분자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논문수는 중국 12편, 일본 27편, 타이완 2편, 싱가포르 1편, 한국 50편으로 모두 92편이었다. 발표자의 경우 누구나 한편의 논문만을 발표하였다. 발표하지 않고 참가한 외국인은 7명이고 국내인은 28명이었다. 5월 12일 오전 경북대학교 국제세미나실의 Opening ceremony에 조직위원장, 경북대 총장, 한국고분자학회장의 축사가 있는 후 한국, 일본 및 중국의 대표자가 Plenary lecture를 하였다. 12일 오후 부터 14일 오후까지의 발표는 경북대 우당과학 교육관의 3개 세미나실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 12일 저녁에는 경북대 복지관에서 welcome reception이 열렸고, 13일 저녁에는 시내 Grand Hotel Plaza홀에서 banquet이 열렸다. Reception과 banquet에 참석한 한국측 senior 인사에는 조의환 교수, 한만정 교수, 김은영 박사, 김정엽 박사 등이었고, 일본측 senior 발표자는 Kamachi 교수, Otsu 교수, Iwatsuki 등이었으며, 중국측 senior 발표자는 Feng 교수, Qiu 교수, Li 교수 등이었다. 김광웅 박사의 사회로 진행된 banquet에서는 각국 대표들의 축하인사와 함께 경북대 국악과 학생들의 전통음악의 연주가 있었다. 이때 한만정 교수가 즉흥적으로 판소리에 맞추어 북으로 장단을 맞추므로써 참석자들의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받기도 하였다. 15일에는 Post Symposium으로 경주관광이 있었다. 대부분의 외국인 참석자들이 경주를 처음 방문한 터라 신라의 옛 유적이 잘 정리되어 있는 점에 모두들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16일 오전에는 대부분의 외국참석자들이 대구공항에서 출국수속을 받았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제주를 출발하여 대구공항에서 손님을 태우고 김포공항으로 가도록 되어있는 09:50분 KAL 비행기가 제주의 기상악화로 결항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싱가포르 2명, 일본 2명, 중국인 4명이 예정대로 출국하지 못하고 오후 비행기를 이용하여 서울에 도착한 후 1박을 하거나 혹은 늦은 시각에 귀국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된 이번행사의 옥의 티라할지(?). 국제협력위원회에서는 다음 심포지움을 2년 후인 1999년 8월 8일 중국 Lanzhou의 Northwest Normal대학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고 경북대학 화학과의 Fu-Mian Li 교수가 조직위원장을 맡기로 하였다. Li 교수는 post symposium으로 동향관광을 갖겠다고 하였으며, 차기대회에서는 태국, 인도네시아 등 지금까지 참석하지 않았던 국가들로부터도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다. 아무튼 본 심포지움이 더욱 발전하여 21세기를 꽃피우게 될 아시아지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훌륭한 고분자 학술대회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그 동안 행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조직위원, 고분자학회 그리고 경북대 고분자공학과 대학원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글을 맺는다.

('97 APOSYM 간사 강인규)

